

# 지지부진 '광주·전남 상생과제' 돌파구 찾나

### 시장·지사·시도의회 의장 25일 나주서 간담회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등 해결책 논의할 듯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합의한 협력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이 오는 25일 나주에서 만난다.

이들은 구체적인 안건 없이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협력과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전남도는 23일 "25일 나주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의회 의장과 전남도의회 의장이 함께 만나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비교적 자주 만났던 양 시·도 단체장과

함께 양 시·도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속하게 실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을 둘러싸고 시·도와 시·도의회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 열리는 '4자 회의'에서 해결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을 위해 시·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최근 통합발전연구원을 운영하다 분리 논의가 진행중인 대구·경북을 찾는 등 시·도의 신속한 통합 결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시·도의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시

### ■ 광주·전남·전북 상생협력 일지

- 2014.5.25 윤장현·이낙연 후보, 민선 6기 시·도 공동정책 협약
- 2014.7.1 민선 6기 출범
- 2014.7.28 이 지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강조
- 2014.10.1 광주·전남상생발전위 출범
- 2014.10.5 광주·전남·전북, 호남권정책협의회 복원
- 2015.2.2 시·도의회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 상정 불가 결정
- 2015.3.3 시·도의회 통합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장과 도지사가 주도한 통합 논의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 시·도의회는 오는 3월3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3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민선 6기가 내건 '광주·전남 상생'의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 시·도가 사전에 시·도, 시·도의회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안건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시·도와 시·도의회의 상생을 놓고 대화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1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이래 14개 상생과제를 선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표적인 상생과제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제2의 남도고속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2015 하계 U대회 성공 개최, 한빛원전 안정성 확보 등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불륜·성매수' ... 낮 두꺼운 공무원들

### 전남도 감사서 비위 시·군 공직자 적발 징계 조치

■전남의 모 시청에 근무하는 40대 초반 남직원이 동료인 30대 후반의 여직원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형사고소했다. 유부남과 유부녀였던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이, 불륜이 발각되면서 내연남은 부인과 헤어졌다. 그러나 내연남에게 새로운 여성이 나타나자 남편이 있었던 이 여직원은 내연남은 물론 그 상대 여성에게 집요하게 문자와 메일을 보냈다. 결국 참다못한 남직원이 과거 내연녀를 고소하면서 이들의 행각은 공무원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전남도는 최근 이미 다른 문제가 있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여직원을 제외하고 남직원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전남의 모 군청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는데 이어 같은 해 10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러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승진임용 제한기간(견책의 경우 6개월) 중에 발생한 비위여서 이 남직원은 중징계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비위 유형 및 비위 정도, 과실여부 등의 조사가 부실해 결국 인사위원회는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전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했다.

전남도가 실시한 연말연시 공직감찰에서 직장 내 불륜은 물론 음주운전, 성

매수 미수, 관외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말연시 공직감찰을 벌여 모두 10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을 징계 또는 훈계하고, 822만원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 해당 시·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징계를 외면하거나 음주운전의 경우 각 시·군의 징계 규정이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모시는 전남도가 여성 동료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남직원에 대해 품위유지의 무 위반 행위에 대해 판결문까지 첨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다른 시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면서도 사회화되지 우수기관에 견학을 갔다며 170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전남도는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직원에 대해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했으나 일부 시·군은 여전히 '견책' 등 경징계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징계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후속 대처가 늦어 보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실시한 연말연시 공직감찰에서 직장 내 불륜은 물론 음주운전, 성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낙연 지사 도민과의 대화

### 다음달 2일 담양서 시작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도민과 대화에 나선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다음달 2일 담양군을 시작으로 4월17일까지 22개 시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지사가 시군을 직접 방문해 도민과 대화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시군별로 해당 자치단체장 및 기관장,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정 및 시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지사가 시군 순방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다문화가족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초청할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약취 현장 둘러보는 이지사

이낙연 전남지사가 23일 영암군 시종면 약취민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지사는 약취원인 제거 등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 주한 미대사관, 전남도립도서관에 도서 200여권 기증

전남도는 23일 "주한 미대사관이 24일 오후 전남도립도서관에 문화 관련 도서 200여 권의 기증한다"고 밝혔다.

미대사관이 기증한 도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학 관련 간행물 98권, 어린이 책 87권,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아메리카 인 컬러' 화보집 10권, 미국 여행 및 오바마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 20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 기증식에는 주한미대사관 로버트 오그본 공보참사관과 김수남 아메리칸센터 관장 등이 참석한다.

기증행사에 이어 대사관 공공외교프로그램 일환으로 로버트 오그본 공보참사관이 전남지역 고등학교생 50명을 대상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삶과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영어 강연을 진행한다.

도립도서관은 기증받은 도서를 도서관 다문화자료실 내 미국 관련 소장 장서로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민상기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미국 대사관측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두 번째

로 도서관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국 대사관을 통해 나라별 자료들을 수집해 도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도서관은 현재 10개국 7800여 권의 외국 자료를 소장 중이며, 이를 활용해 상반기 중 도서관 남도화랑에서 특별 기획전전을 할 계획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원하는 시간에 민원 예약하세요"

### 전남도, 도민 불편 해소 '예약 방문제' 실시

전남도가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와 도민접견실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민원예약 방문제'를 실시한다.

예약방문 상담은 전화(061-286-2316)나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참여와 소통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면 도민소통실에서

해당 실과와 협의를 거쳐 방문시간을 정하고, 도민접견실에서 해당 실무자와 민원인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민원인들이 직접 각 실·과를 방문해 상담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처리 방해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전남도청 1층에 마련된 도민접견실에서 민원인과 해당 실무자가 만나도록 제도를 개설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http://kwangju.co.kr)

2000만호 이상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b>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b>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b>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b>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